# AI 꿈꾸는 고교생 광주 견학 줄잇는다

## AI산업융합사업단 프로그램 진행
## 고성능 컴퓨터 보고 비엔날레 관람
## SW 마이스터고 등 참여 큰 호응

지난 14일 광주 동구 AI 창업캠프를 방문한 광주 SW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미래 인공지능(AI) 전문가를 꿈꾸는 AI 중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 AI 산업 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 소프트웨어 (SW)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70여 명을 초청해 광주 동구 AI 창업캠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AI 기업 창업 요람'인 AI 창업캠프 방문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의 AI 학습·훈련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 견학, 광주비엔날레 관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날 견학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AI창업캠프 내부 시설 투어에 이어 다양한 AI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선진 AI기술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광주 금남로 4가에 있는 AI 창업캠프는 AI 분야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한 컨설팅, 투자 지원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에선 현재 AI 창업캠프 1·2호점을 운영 중이며, 70여 개의 AI 기업이 입주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광주 SW 마이스터고등학교 스마트IoT과 2학년 정민석군은 "AI 창업캠프에서 스타트업 개발자들을 직접 만나고 AI 제품을 체험하면서 AI 산업과 기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광주비엔날레도 관람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만족해했다.

앞서 지난 7일과 8일에도 각각 광주 SW 마이스터고등학교와 AI 교육 선도학교인 해남고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방문해 AI 창업캠프, 지스트 고성능 컴퓨터를 견학하고,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AI 창업캠프와 고성능 컴퓨터 견학을 통해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광주 AI 산업 생태계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 갖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안전광주 공모전' 422점 몰려 '인기'

## 대상 2점 등 27점 수상
## 22일까지 시청 1층 전시

광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한 '안전실천 안전광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공모전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422명이 참여했으며, 작품의 완성도, 표현력, 참신성 등을 심사해 27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광주예술고등학교 정지운 학생의 '당신의 눈과 귀는 무엇입니까', 송우초등학교 손예림 학생의 '기초부터 안전하게 생명 살릴 수 있다' 등 2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잠깐! 우회전 일시정지' 등 6점, 우수상 9점, 장려상 10점 등 모두 27점을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해에 비해 참여작이 46점에서 422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작품의 완성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수상 작품들은 도로횡단 때 핸드폰 사용의 위험, 우회전할 때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 등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시청 1층에서 수상작을 전시하며, 하반기 열리는 시민체험한마당 행사 등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올해 공모전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신하고 창의성 높은 작품을 출품했다"면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실천 안전광주 공모전'을 더욱 내실 있게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소방학교 교육훈련관 개소 본격 운영

## 호남 최초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호남권 최초로 조성된 광주시소방학교 교육훈련관이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소방학교는 지난 15일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형석·양향자 국회의원, 김석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훈련관 개관식' 가졌다. 〈사진〉

교육훈련관은 민선 8기 세부 공약사업 중 하나로 예산 159억4000만원(시비 5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1억원, 국비 18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소방학교 부지 내 들어선 광주교육훈련관은 지휘역량강화센터, 전문구급교육센터 등 전문 소방교육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면적 4941.2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며, 1층 소방시설 실습실·운동부하훈련실·농연탈출훈련실, 2층 강의실·정보화교육장, 3층 전문구급교육센터, 4층 지휘역량강화센터를 갖추고 있다. 4층 높이 다목적훈련장도 설치돼 있다.

특히 가상현실(VR) 재난현장을 활용한 현장지휘관 교육훈련 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도 운영하는데, 정예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고 실제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소방력 운용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소방학교 교육훈련관 개관으로 호남권역 소방공무원의 현장지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소방학교는 1996년 3월 개교 이래 4개 광역시·도(광주·전남·전북·제주) 소방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거점 소방전문 교육훈련기관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소방 소방기술경연 구조전술분야 전국 1위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제36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전술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문상우 소방위, 최준영·조영훈·반인엽·문선종 소방교 등 광주시 구조전술분야 대표들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구조기술과 완벽한 팀워크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위를 수상한 구조팀은 특전으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한다.

이번 대회는 화재·구조·구급전술, 최강소방관, 화재조사 등 11개 경연 분야에서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761명이 참가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출전팀을 구성하고, 개인·단체훈련부터 전국 경연대회 출전 등

김문용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훈련 준비를 통해 증진된 체력과 구조기술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더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집 고쳐주기' 재능 나눔

## 저소득 노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장마철을 앞두고 소외계층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에 나서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산구 임곡동에서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 고치기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공사 임직원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A(85)씨의 집을 방문해 낡은 조명기구와 전열 콘센트 등 전기 시설을 손보고, 주방 싱크대와 수납장 교체, 외부 벽면 도색을 하는 등 집 구석구석을 정비했다. 또 장마철에 대비해 집 안을 도배하고 장판도 교체했다. 공사는 기술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주거환경 개선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시설 방문 봉사, 사회공헌 성금 전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은 "재능나눔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만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실적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자치구·기상청, 자연재난 함께 막는다

## 폭염·강우 피해 대비 합동회의

광주시와 자치구, 기상청이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충무 시설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협업부서 과장과 자치구별 부구청장,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을 위한 풍수해·폭염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역대급 폭염과 강우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현재 폭염에 대비해 예년보다 이른 지난달 말부터 그늘막 521곳, 무더위 쉼터 등 2천여곳, 도로 살수장치 2곳, 쿨링 포그 23곳을 가동하고 있다.

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이달 말까지 공동주택 30개 단지·56개 출입구, 반지하 주택 출입구 등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10억8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살수차·무더위쉼터 운영, 폭염대응물품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